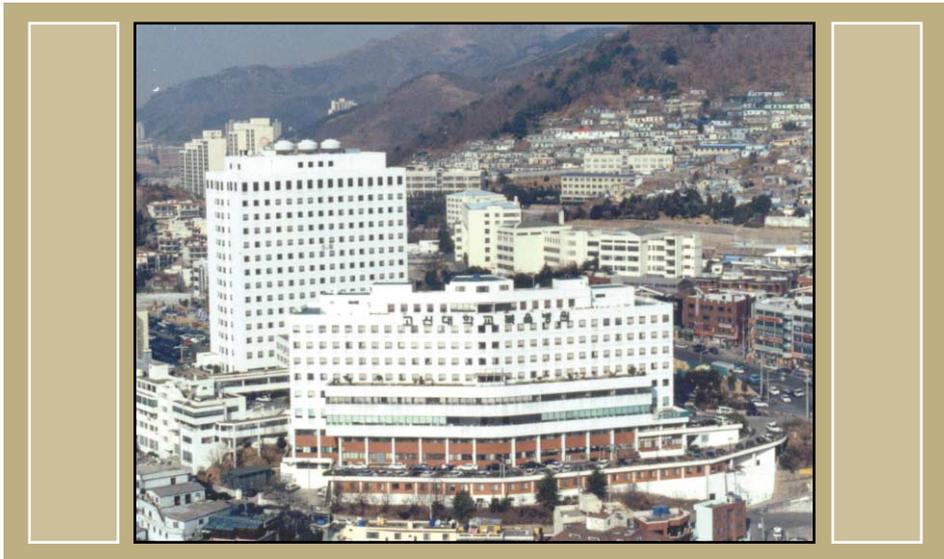


“아시아 의료허브” 러·中, 동남아 환자유치
 PET-CT 등 첨단장비 도입 박차
 위기를 換骨奪胎 전기로, 최고 암센터 재비상

고신대복음병원



지방 최초의 암전문병원으로서 26년여 동안 쌓아온 실력과 명성을 바탕으로 시민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아시아 허브(Hub) 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채찍을 가하고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은 부도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암센터 특화병원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무기로 PET-CT, Cyber

Knife 등 최첨단 장비 도입을 확정하고 문자 그대로 공격경영에 나선 것이다.

이 병원은 전병찬 병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병원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데, 전 교직원의 능동적 사고와 대화함으로 갈등과 불안을 떨쳐내고 암전문병원으로서의 장점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
신
대
복
음
병
원



♣ 6~7월 PET-CT 등 차례로 선보

5월중 응급의료센터를 ‘지능형’ 시설로 전면 보강하여 재오픈하며, 오는 6월21일 개원 53돌을 맞아 PET-CT(2동 지하 2,3층에 설치중), Cyclotron(총 80톤이나 되는 엄청난 중량으로 미국에서 이미 선적되었음)가동 기념식을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예 BEXCO)에서 개최하여 최첨단 고가장비를 갖춘 암전문병원으로서 힘찬 도약을 대내외에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7월경엔 CyberKnife 가동에 들어간다는 목표이다.

♣ 53년전 피난민·빈민진료소로 출발

고신대복음병원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51년 임시수도인 부산 남항동 제3영도교회 내에 천막을 치고 ‘복음진료소’로 문을 열어 피난민과 병마에 시달리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의술을 펴기 위해 시작된 병원으로 53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병원은 치료와 전도 외에 기독교의 사랑의 소식을 전파한다는 차별성이 있어, 병원 명칭부터 복음(기쁜소식, Gospel)을 표방하고 있다. 반세기전 창고에 칸을 막아 진료를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해 온 복음병원은 재단의 모체인 고신대에 81년 의학부가 신설되고, 88년 4년제 간호학과 개편, 93년 보건대학원 설립 등 외형성장을 거듭했다.



♣ 仁術과 섬김의 삶...장기려 박사 정신 면면히 이어져

또 한국의 슈바이처 성산 장기려 박사가(평생 무소유로 가난한 자를 돕는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조합을 설립하고 국내 최초 간대량 절제술에 성공하는 등 한국 의료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김) 설립한 병원이라는 자부심과, 전국 두 번째로 개설된 암센터로 그 동안 “암 환자는 복음병원의

로 가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로 명성을 쌓아왔다.

♣ 지방 첫 암센터, ‘癌’하면 ‘복음병원’ 연상

78년 세브란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지방 최초로 암센터를 개설해 환자치료와 연구에 상당한 성과를 이룩해오고 있는 복음병원은 부산·경남권은 물론 대구·경북 등 원거리 환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아오고 있다. 漢水 이남을 경계로 암환자 진료실적이 으뜸이다.



♣ 첨단병원 新모델 제시, PET-CT, Cyber Knife 도입 최고 암센터 위치 확고히

현재 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25개 진료과에 16개 병동, 912병상, 임상교수 100여명 등이 진료에 임하는 이 병원은 암전문병원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부도’란 상황속에서도 기존 암진단장비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 첨단장비인 PET-CT, Cyclotron, CyberKnife 등의 도입을 확정했다. 비상상황에서 장비도입 우선순위를 두고 공격적 홍보전략을 펴는 것에 대한 비판의견이 있지만 비상국면 타개책으로 병원 이미지 일신과 장비도입이 절박하다는 주문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선 최첨단 장비인 PET-CT(5mm의 작은 크기의 암 및 노인성 치매 조기진단 장비), Cyclotron(PET-CT에 이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장비, 방사성 동위원소는 영남권 병원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게 됨), CyberKnife(암세포 부위에만 소량의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照射함) 등의 도입이 실질적(전략적)으로 필요했다(CyberKnife는 미국 CIT社와 fee per scan조건으로 공동운영하기로 합의).

전체 입원환자의 80%가 암 관련 환자일 정도로 암전문병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는 의료진은 이같은 첨단장비 도입이 병원 정상화를 앞당길 뿐 아니라 발전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와 함께 선진국형 의료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해 △뇌종양 정위적 방사선 수술을 위한 X-Knife △방사선 암 치료기인 선형 가속기(Linear Accelerator)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질병진단장비인 감마카메라 등의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복음병원은 또 절개없이 척추디스크와 척추불안정증을 수술하는 '최소침습 미세 척추고정술' 등 임상 각 부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 아시아 허브병원으로 재도약 시동

아름다운 송도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Skyline이 드러나 보이기도 함) 곳에 위치한 고신대복음병원은 아시아 허브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이 병원은 앞으로 진료영역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확대하여 아시아 허브(Hub)병원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진료소 개설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러시아와 중국인 등에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클리닉을 개설키로 한 것이다.

10병상의 입원실, 진료실, 접객실을 갖춘 외국인 전용클리닉엔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의사 3명과 간호사 및 전문통역사

각 2명을 배치해 시내 거주 외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 등의 외국 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러시아인 선상진료, 동남아인 무료진료 및 상류층 환자, 중국동포 유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러시아총영사관과의 자매결연은 상호 의료교류 및 암치료 등 한국이 더 우수한 분야에 대해선 러시아인이 복음병원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아울러 주한 각국 의료기관과 의료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에 장기거주하는 외국인 진료서비스 향상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고신대를 위시한 부산지역 의료기관 해외의료교류추진위원회는 '중국환자 한국 수술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의 국제화야말로 지역 의료기관 난관 돌파의 촉매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병원측은 부산항과 김해국제공항, 부산신항만 경제특구 등 동북아 중심지인 부산의 지정학적 이점을 고려할 때 의료산업은 앞으로 부산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사회봉사 활동

개원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무의촌 진료를 비롯 부산경남지역에서 대시민 무료 진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시민들과 교



회와 연계된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도 열심이다.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외국 어려운 환자 초청 무료진료도 한다. 최근에는 백내장으로 고생하던 필리핀의 현지목사님과 식도암으로 고생하던 아프카니스탄의 현지 외과의사를 초청하여 무료로 치료해주었다.

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병원으로서 해외 선교활동과 병행하여 지난 12월에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카메룬 등의 오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산업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사상·강서구의 약 800여개 사업체 근로자의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 상담·교육활동도 펴고 있다.

이 밖에 소아암 환우돕기 사랑의 바자회, 롯데 자이언츠 사인회, 환아 위로연(고신사랑회), 전교직원 헌혈운동,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서비스코디화 운동(직원마다 고객 한명씩 담당), 환경마라톤에 의료진 지원, 해송학교(장애자학교) 버스

지원 등 여러 분야에 봉사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각종 문화행사(강연, 전시회, 음악회)는 상설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료계와 협진협력 구축

원활한 환자의리를 위해 진료의뢰센터를 개설, 120여개 지역 의료기관들과 협진협력 병원을 체결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병문안 메시지 전달

병원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입력하면 병원 직원이 편지지에 출력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인터넷 병문안'에 대한 호응이 크다.

♣부도아픔 달고새출발

복음병원은 그동안 국내 '암전문병원'으로 입지를 굳혀왔으나 지난해 5월 좌초



위기를 맞았다.

2002년 8월부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직원들의 전면파업이 시작됐고 운영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도처리돼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등 위기를 맞게 됐다.

다행히 교단에서 긴급총회를 통해 법인에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병원의 운영에는 무리가 없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신뢰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의 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제3대 병원장에 신경외과 전병찬 박사가 취임하면서 아픈 기억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빠르게 시장환경에 대응하며 위기를 공격경영으로 돌파하고 있다.

전 원장은 정상화 방안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고 있는데 환경개선과 입·퇴원 예고제 시행, 전공의 처우 개선 및 센터·과별 책임경영제,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병원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지난해 취임 당시 60%대에 머물던 병상가동률이

82% 정도로 높아지면서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MRI 촬영 및 수술도 30% 이상 증가.

일례로 1월 20일 하루에만 220명 신규입원(하루 최대 외래 1,764명)을 기록, 친절한 병원 만들기 홍보 등 환자유치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했다.

부산의대 출신으로 이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1호이기도 한 전 원장은 병원 정상화를 위해 직원 화합을 적극 추진중이며,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 전공의협의회 등 그룹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병원측의 노력을 채권단이 높이 평가해 정상화에 협조적이며, 재단인 고신 교단과 임시이사회를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의 목표는 경영 정상화를 토대로 암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데서 나아가 아시아 의료 허브로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것이다.

복음병원은 앞으로도 기독의료인 양성, 우수 의료진과 첨단시설을 통해 환자진료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실천과 복음전파에 힘쓰는 병원으로서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